



성숙한 사람은...



김정자 언론인·본지 논설위원

미국 작가 샬린저가 반세기 전에 내놓은 <호밀밭의 파수꾼>만큼 독자들, 특히 청소년 독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소설도 드물 것이다. 1950년대 미국 사회의 획일화된 가치관과 의의 강요, 대중 사회에서 넘쳐나고 있던 퇴폐와 속물근성에 구역질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성적불량으로 방금 퇴학당하고 만 고교생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청순하면서도 예리한 감수성에 의해 드러나는 목소리는 지금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퇴학으로 여러 학교를 전전했던 홀든은 우선 '훌륭한 인간'을 키운다는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 퇴학 후 며칠간 혼자서 뉴욕을 떠돌며 보고 느낀 것은 꿈의 상실과 천박하고 혐오스러운 욕망들뿐이다. 그나마도 그가 마음 기대로 싶어 했던 유일한 선생님이 있었고, 그 선생님은 어느 정신분석학자의 글 하나를 그에게 써 주었는데, "미성숙한 인간은 어떤 이유를 위해 고귀하게 죽기를 바라지만 성숙한 인간은 동일한 상황에서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구절이 기원전 중국의 시인 굴원의 어부사를 연상시키는 것은 왜일까. 세상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려는 굴원에게 '세상 청탁(淸濁)에 구애받지 말라'던 그 어부의 선미(禪米)마저 느껴지는 마지막 구절 말이다. 지금은 미국 청소년 최우수 권장도서임에도 출간 초기 청소년 금지도서가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혹시 청소년들의 성숙치 못한 독법으로 '기성의 가치관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루는 참여연대를 이끌면서 NGO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박원순 변호사님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니, 자기 소득의 1%를 재단에 기증해 주시거나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증해 주시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나누겠다"는 내용이였다. 그 편지를 받고 참 많은 생각을 하였다. '참! 그래, 어쩌면 이런 재단 운영은 일반 사회단체도 좋지만 종교단체,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불교가 나서서 한다면 우리 불자들의 호응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상념에 사로잡혔다. 그 후 한 종합일간지와 연대해 '1% 기부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열려가 사회 저변에서 확대되어 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지난 10월 중순쯤 KBS '사랑의 리퀘스트' 담당 작가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처님오신날 즈음에 출연하셨으니 가을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 해 연등축제 준비 기간에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방송되는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면서 출연했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출연자들이 찾아가 위로하고 어려운 사연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내용이었다. 사연을 소개하는 사이사이에 나처럼 초대된 사람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3개 정도의 사연을 보여주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ARS 전화로 모금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리퀘스트 따르릉 1000원입니다'였다. 보통 모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성공이라는데, 난생 처음 TV 생방송에 출연한 그날 바로 1억원을 넘겨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었다. 두 번째 출연 날짜는 12월 14일로 결정되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덕분에 난생 처음 중주호도 보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진여원에



불자 세상보기

원택 스님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해인사 백련암 감원

'나눔'의 삶, 불자들이 앞장서야

다녀오게 되었다. 진여원은 현각 스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미인가 복지시설이다. 프로그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모금액이 주유소 미터기처럼 화면에 표시되어 나온다. 방송시작 전에 구성작가로부터 "스님!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요즘은 모금액이 8천만 원을 넘기가 쉽습니다. 전에는 9천에서 일억이 넘겨 모금이 되었는데..." 하는 당부도 받은 터라 꽤 긴장이 되었다. '그래, 오늘도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할 텐데' 하는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무대에 섰지만 조마조마한 심정은 어쩔 수 없

었다. 그런데 프로그 진행되는 동안 미터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2억원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그럴까? 기계고장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방송을 끝내고 분장실로 돌아오니 모든 진행자며 스태프들이 싱글벙글하며 환호성을 지를 듯한 분위기였다. 구성작가의 말이 "사랑의 리퀘스트를 진행한 지가 다음 주면 꼭 5년이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2억원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스님이 출연하셔서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저희들도 기계가 고장 난 줄 알고 범석을 떨었는데 알아보니 기계고장이 아니라 진짜로 성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하며 좋아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요즈음 나는 백련암에 들르는 신도나 학생들에게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방영하는 '사랑의 리퀘스트 따르릉 1000원입니다' 라는 프로그에 참가해서 ARS 060-700-0600을 누르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불자들이 힘겨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개막식을 치르는 동대문 운동장이 청계천 복원 공사 중에는 주차장으로, 복원 후에는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안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라도 제등행렬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연등축제를 더 새롭게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최측과 참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봤다.

열린 마당

연등축제 어떻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윤준 기획과장

청계천이 복원된다는, 친환경적인 변화가 반가운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나라 유일의 거리행진축제인 연등행사가 그 출발점을 잃게 되었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대안으로 장충체육관,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운동장, 안 되면 여의도 고수부지라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어디 동대문운동장 축구장만 하겠는가?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거리는 약 3km 정도다. 보통 성인은 평균 보폭과 속도로 한 시간에 약 4km이상을 이동한다. 따라서 행진자체를 즐기며 흥을



불교문화정보네트워크

김경호 상임이사

해프면 일하고 아들이 내리면 잠자던 그런 시절에 일년에 한번 펼쳐지는 제등행렬은 강렬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아들을 밝히는 빛의 잔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무명번뇌를 밝히는 빛과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아직도 아들을 밝히는 빛의 상징일 수 있을까? 또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 그 이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조계사로 회향되는 초파일 불축 제등행렬의 코스는 변할 수 없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욱 회장

동대문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변한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관이 된 것으로, 서울시내 주차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런데 불교인인 내게는 동대문운동장의 주차장화 문제가 다른 시각으로 다가온다.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 불축행사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었고, 동대문운동장에서 출발해 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대문운동장이 주차장이 되는 것에 대해 찬, 반을 표하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불축행사를

조계사 반경 4~5km내 적당

둘우는 연등축제의 경우 3km 정도의 거리면 아주 적당한 반나절 정도의 전체진행시간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거리행진을 마치는 곳은 조계사이다.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중심지이다. 아직은 이 일대가 큰 공사야 정비로 보수중이라 어수선하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출발점이 없어진다고 조계사라는 축제의 중심지를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서울시 지도를 놓고 조계사를 중심으로 컴퍼스를 짤아 둘러 반경 4~5km 이내 다른 대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서울시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은 거리행진을 여법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

행사위주 아닌 참여축제로

는 것일까? 그 코스를 고집하며 제등행렬이 지날 자리는 모두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 비어버린 도심의 빈 공간밖에 없다. 축제를 함께 즐기고 감상해 줄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거리축제는 얼마나 활기찬가. 발전시켜야 할 것은 규모의 행사가 아니라 참여의 행사다. 이제 초파일이 진정으로 불자들이와 국민들의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 제등행렬 자체를 대중에게 돌려주자. 사찰별로 할당하고 경쟁시켜 인원 동원하는 일은 지양하고 사는 곳 가까이 에, 진정으로 빛이 가치를 밝히는 곳에 등을 밝히자. 그래서 문화의 사각지대에 불을 밝히는 지혜를 발휘하자.

문화적 손실 우려, 대안 시급

어떻게 치러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제 부처님오신날 불축행사와 제등행렬은 불교계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도 중요한 거리문화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대문운동장 주차장화로 인해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빛을 잃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반드시 대안 장소가 물색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대안 장소를 찾지 못하면 불교계로서 커다란 문화적 손실이 될 것이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불축행사가 동대문 운동장으로 옮겨질 때도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었음을 불교인들은 알고 있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가야만 하는 이때,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불교인들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희망의 등 달기'로 세상 더 밝게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면)는 16일 경기도 송추에 있는 광릉보육원에 성금을 전달한다. 모금 과정이 흥미롭다. 세상이 온통 새해맞이에 들떠 있던 지난 해 12월 31일 재야의 종 타종 행사에 앞서 '1인 1등, 희망의 등 달기'를 해서 모은 돈이다. 모두들 새해 설거에 바쁜 이 즈음, 잠시 '자기'라는 존재를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에게서 해방됨으로써 세상도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장군축마

'도선사' 불사금 미납자 공개, 신도 반발



도선사가 12월 26일자로 발행한 <도선법보>에 만불불사 동참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신도는 1일 인터넷 게시판에 "불사금을 다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영가의 이름까지 밝혀 법보에 올린 것은 너무나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도선사는 7일 해명 글을 통해 10년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고, 빠짐 없이 회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었다고 밝혔다.